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팜므 파탈(Femme Fatale) 이미지

최 정 화*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The Femme Fatale Image in Fashion Illustration

Jung-Hwa Choi*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7. 1. 19. 접수 : 2007. 6. 27.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d theorize the characteristics of femme fatale in fashion illustration since 1980.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ocumentaries for theoretical studies about femme fatale and the visual characteristics in fashion illustration works since 198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emme fatale expressed in the general realm of art was icon of fatal and seductive eroticism in late 19th century. She is composed of diverse images like mythology, exoticism, fear and sensuality. The characteristics of her image in fashion illustration were expressed into de-body image by union of animal and female body, or machine and female body, duplicity of death and sexuality, sexual decadence or abnormality and powerful masculine taste. First, de-body image by union of animal and female body, or machine and female body was expressed in transformed mythical image or bizarre and demonic image, grotesque image linked by picture of female body and painting of animal image, and cyborg image linked by machine and realistic female body by digital media. Second, duplicity of death and sexuality was expressed in juxtaposition by sexual pose, body and something metaphorical and symbolic depiction and de-constructive depiction of death. Third, sexual decadence or abnormality was expressed in fetishistic style, obscene depiction of cheap and hedonistic sexuality, masochistic depiction like antisocial and diseased sex appeal. Forth, powerful masculine taste was expressed in man's face, body, pose, masculine fashion, man's role related to crime and threatening weapon, etc. As mentioned above, femme fatale in fashion illustration was expressed in diverse images by fashion illustrator's point of view. Although she was originated by men's fantastic vision, she brings a catharsis to human being. And she is also recognized as new paradigm and positive cultural sign in our times.

Key words: femme fatale(팜므 파탈), fashion illustration(패션 일러스트레이션), cultural sign(문화적 기호), new paradigm(뉴 패러다임).

I. 서론

현대에는 서구 사회의 전통적 가치 체계의 해체와 다원화 경향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부정적 시각에 놓여있던 여성, 흑인, 동양, 사회적 약자 등의 비주류

*이 논문은 2006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E-mail : jhchoi0@knu.ac.kr

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담론이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성, 교육, 고용, 자치, 권리 등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 받은 여성들은 굿 걸(good girls), 베드 걸(bad girls), 스쿨 걸(school girls), 오펠리어스(ophelias), B 걸(B girls), 라이엇 걸(riot girls) 등의 이름으로 대중문화 속에서 지배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¹⁾. 1980년대 이후부터는 남성 권력에 반대하고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인 마돈나(Madonna), 스파이스 걸스(Spice Girls)의 걸 파워(Girl Power)가 팜프 파탈의 신화를 환기시켰다. 남성을 지배하고 성취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이성애적 섹슈얼리티의 프로섹시즘, 주류 문화에 부합한 백인 미적 기준의 성적 매력, 소비주의, 여성다움을 강조한 성적 대상화된 여성성을 주장하는 파워 페미니즘²⁾ 또한 적극적인 섹슈얼리티, 분노, 권력, 남성적 힘을 지닌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들은 종종 팜프 파탈(femme fatale)로 불리며, 현대 여성들에게는 하나의 문화적 기호로서 긍정적인 개념과 시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팜프 파탈은 문학 작품을 비롯하여 예술영역 전반에 걸쳐 즐겨 사용되는 모티프 중의 하나로써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서 발전되어온 여성성에 대한 하나의 원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 장르 속에서 선정적인 매력과 치명적 위험을 지닌 여성상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다³⁾.

팜프 파탈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여성의 정체성을 반영한 예술의 대표적 형태로 문학이나 회화에서 상징적인 시각 이미지로 묘사되었다. 19세기에는 고티에(Theophile Gautier),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의 문학 작품, 모로(Gustave Moreau), 로제티(Dante Gabriel Rossetti)의 회화 속에서 중심적인 인물로 부각되어 나타났으며⁴⁾, 이후 시각 예술, 필름 노와르의 영화 속에서 재가공되어 나타났다. 대중문화 속에서는 내면의 본질을 충실하고 강렬하면서도 관능적이고 충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문

화적 인간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인체와 복식의 상징적인 표현 방식이 주요 모티프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인체와 복식을 매개체로 하여 인류 문명처럼 오래된 과정이며 장르이자, 정보나 표현을 전달하는 자연스럽게 세련된 수단으로서 대중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시각예술 가운데 하나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다⁵⁾.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 작가의 개성과 내면 세계, 그리고 시대마다 새로운 여성 이미지를 동시에 반영하는 예술의 한 장르로써 한 시대의 정신과 가치 체계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 등이 작품 속에 함께 코드화되어 있다.

현재까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시각적 표현 방법, 표현 도구, 교육, 커뮤니케이션, 역사, 이미지, 시대 사조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어져 왔는데,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회화, 영화, 패션을 포함한 예술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미 주요한 여성상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 팜프 파탈과 관련한 시각적 연구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시대의 문화적 코드를 다루는 주요한 매체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1980년대 이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팜프 파탈의 표현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시각적인 팜프 파탈 이미지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시대의 주요한 여성상과 문화적 코드를 반영하는 예술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규명해 보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팜프 파탈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대중문화 속에서의 표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단행본 및 정기 간행물 등을 통한 문헌 연구를 토대로 하였으며, 실증적 분석을 위해서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가의 작품집, 패션 관련 단행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수록된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Anita Harris, *All about the Girl: Culture, Power, and Identity*, (New York: Routledge, 2004), p. x vii.

2) 김주영, “걸파워 의상에 표현된 3세대 페미니즘”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p. 38-41.

3) 서승원, *몽크*, (서울: 서문당, 1992), pp. 1-2.

4) Mary Ann Doane, *Femmes Fatales*, (New York & London: Routledge, 1991), p. 1.

5) 윌리엄 패커, *Fashion Drawing in Vogue*, 강은숙 역 (서울: 경춘사, 1995), p. 174.

1. 팜므 파탈(Femme Fatale)의 개념 및 발생 배경

1) 팜므 파탈(Femme Fatale)의 개념

대중문화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관능적인 육체와 성에 대한 이슈화는 시각적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낳았으며, 그 가운데 팜므 파탈(femme fatale)은 치명적이고 황홀한 에로티시즘을 대표하는 도상이다. 팜므 파탈은 1912년 극작가 버나드 쇼(G. B Shaw)가 처음 사용한 이래로 오늘날에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나 예술적 경향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래 불어 '여인'이라는 'femme'와 '치명적'이라는 'fatale'이 결합된 팜므 파탈은 서구 문화에서 예술, 문학, 신화, 종교의 가장 오래된 주제 중의 하나⁶⁾이기도 하며, 19세기 말 문학과 상징주의 회화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파급되었던 요부형 여성 이미지로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소유한 두려움의 대상을 의미하였다. 엘리자 라인 린튼(Eliza Lynn Linton)의 '와일드 우먼'에서부터 브람 스토크(Bram Stoker)의 'vampire'에 이르기까지 예술, 시, 소설에서 신비스러운 보습과 동시대적인 보습으로 자주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매춘, 뱀파이어, 아프리카의 여왕, 원시적인 흑인 여성, 살인자 등으로 계급과 인종의 경계를 교차하는 이미지⁷⁾로 묘사되었다. 더불어 남성을 유혹하고 파멸을 불러오는 어두운 여성, 스파이더 우먼, 사악한 여성 등으로 악을 대표하기도 하였다.

2) 발생 배경

팜므 파탈의 신화는 이브와 판도라에서 비롯되었지만 현대 여성의 지위가 특별한 열망으로 자극되기 시작한 19세기 말에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였다⁸⁾. 19세기 말은 바바리즘(barbarism), 데모니즘(demonism)에 의한 시민사회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여성 해방의 움직임과 여성 운동으로

인해 여성 투표권의 참여, 여성의 산아 제한 운동, 어머니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등 새로운 여성상이 등장하였다. 예술, 패션, 문학이 페미니티와 연루되어 있었으며, 교육과 직업의 확대, 수동적이기만 했던 여성들의 의식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페미니스트들의 운동은 교육 및 정치적 권리와 관련하여 부르주아의 기초를 해하는 것⁹⁾으로 보여졌으며, 권력을 원 여성들에 대한 메타포로서 팜므 파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규범, 질서, 정의, 남성적 논리, 문화로 대변되었던 보수주의자들인 서구의 백인 남성들이 자아/타자, subject/object, 현존/부재, 법/혼돈, 남성/여성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¹⁰⁾ 전통적인 서구 사회의 기초 질서를 위해하는 여성들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편파했던 것이 팜므 파탈이었다.

19세기는 또한 산업혁명과 도시화에 의한 근대화 및 물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그리고 새로운 복제기술(사진, 영화)로 인해 여성의 신체는 예술, 문학, 철학에 의해 알레고리화되고 신비화되었으며, 팜므 파탈은 생산을 숭배하는 사회의 안티테제(anti-these)로서 어떠한 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불모의 여성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¹¹⁾.

팜므 파탈의 발생 배경에는 19세기 말의 데카당스한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 데카당스는 문학과 미술에서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인간의 묘사에 있어 선과 악, 신과 사탄의 상호 대립적 존재를 결합하여 묘사하였다. 그리고 퇴폐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남성들의 마조히즘(masochism)적 성향 역시 팜므 파탈이라는 주체가 성행한 주요 원인¹²⁾으로 분석되고 있다.

2. 팜므 파탈(Femme Fatale) 이미지의 특성

팜므 파탈은 카오스적이고 불가사의한 신비로 가득 찬 존재로 성경이나 희랍 문학의 신화적 존재로

6) E. Ann Kaplan, *Women in Film Noir*, (London: BFI Publishing, 1980), p. 35.

7) Rebecca Stott, *The Fabrication of Late-Victorian Femme Fatale*,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Macmillan, 1992), p. viii.

8) Valerie Steele, "Femme Fatale: Fashion and Visual Culture in Fin-de-siècle Paris," *The Journal of Dress, Body & Culture* Vol. 8 No. 3. (2004), p. 316.

9) Rebecca Stott, *Op. cit.*, pp. 5-14.

10) *Ibid.*, pp. 13-31.

11) Mary Ann Doane, *Op. cit.*, pp. 1-2.

12) 타마키 호리에, *남자들은 왜 악녀에게 끌리는가*, 정은지 역 (서울: 한언, 2004), p. 173.

서 그려졌다. 최초의 이브이자, 아담을 유혹한 뱀의 마녀 릴리스(Lilith), 남성을 유혹하여 돼지로 만들어 버린 태양의 신 헬리오스(Helios)의 딸 요정 키르케(Circe),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로 몸은 사자이며 새의 날개와 여성의 얼굴을 가진 스팅크스(Sphinx), 성적 질투심으로 인해 감정의 분출과 파괴 본능, 폭력성으로 남성을 공포에 떨게 한 메데이아(Medeia), 남성의 성적인 페티쉬를 대표하는 구불거리는 머리 카락을 통해 관능성, 치명성, 분노를 표현한 메두사(Medusa), 상반신은 처녀, 하반신은 물고기로 바다의 마녀라 불리는 사이렌(Sirene)과 같은 신화적 존재들은 매혹과 공포, 호감과 혐오의 상반된 감정을 드러내는 팜프 파탈의 대표적인 신화적 도상들이다. 특히 신화에서 보여지는 인간적 형상과 동물과의 결합은 팜프 파탈의 메타포로서 인간 내면에 숨어 있는 성욕, 어두운 포악성, 황폐한 광기들을 드러내며, 악마적인 것과 연결되고 있다.

신화를 벗고 집시 카르멘이나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처럼 이국적 요소와 결합된 팜프 파탈은 섹슈얼리티의 환상적 투영을 보여준다.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섹슈얼리티는 두려움과 욕망이 가장 근접해 있는 영역으로서 타자의 개념이고 애조틱과 에로틱이 종종 융합되어 있다¹³⁾. 이국적인 것에 관해 페논(Frantz Fanon)은 서양 백인의 시각에서 니그로(Negro)를 아웃사이드로 규정하며, 죄악의 상징이자 포식적인 섹슈얼리티, 가장 저급함, 그리고 악의 중심인 팜프 파탈로 표현하였다. 이국적인 것과 관련하여 베일과 하렘은 오리엔탈 미스터리의 심볼¹⁴⁾, 베일은 부채를 숨기고 사실을 숨기는 기능, 마스크, 부채는 위험한 현혹을 의미하며, 페미닌과 결합된 이중성의 표시¹⁵⁾로써 팜프 파탈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초자연적이고 모호한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팜프 파탈은 질병을 함축하고 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결국 남성에게 의해 처벌을 받거나 죽게 되는 운명으로 표현된다. 이는 팜프 파탈이 양성 평등을 부르짖

으며, 여성의 권리 신장을 외쳤던 페미니즘에 대한 남성들의 심리적 불안과 공포에 대한 징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남성 공포의 징후는 19세기 불가사의하고 초자연적이며, 특히 성적인 치명성을 내포하고 공포와 악을 의미하는 뱀파이어를 통해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당시 남성들을 파멸로 이르게 하는 뱀프의 상징이 되었다.

남성 공포의 또 다른 징후로는 살로메가 있으며, 살로메는 사디즘과 마조히즘을 동시에 표현하는 인물로서 여성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남성의 공포를 가장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그리고 살로메가 팜프 파탈의 전형이 된 것은 가학과 피학성, 변태 성욕, 퇴폐와 타락, 불타는 욕정, 섬뜩한 피, 동양에 대한 환상¹⁶⁾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팜프 파탈 이미지는 남성의 성적 욕망과 결부되어 나타난 것으로 신화성, 이국성, 공포성 그리고 관능성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Ⅲ. 대중문화 속에서의 팜프 파탈(Femme Fatale) 이미지

1. 회화

회화에서 팜프 파탈의 도상이 본격적으로 확립된 것은 1870년대 전후이며, 상징주의 화가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Dante Gabriel Rossetti)와 구스타브 모로(Gustave Moreau)에 의해서이다. 로제티는 ‘아스타르테 시리아카(Astarte Syriaca)’에서 불멸의 여신 아스타르테가 육감적인 입술, 풍성하고 긴 머리카락으로 중앙에 우뚝 선 채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으로, 모로는 키메라, 스팅크스와 같이 여성과 동물을 접합시킨 합성인간으로 팜프 파탈의 도상을 보여주었다. 모로는 또한 새로운 유형의 여인이자 정육의 화신으로 살로메(Salome)를 묘사하여¹⁷⁾ 죽음과 섹슈얼리티를 함축한 팜프 파탈을 표현하였다.

상징주의와 함께 19세기를 배경으로 한 유미주의에서는 도발적인 눈빛, 매혹적인 입술, 유방과 배꼽

13) Mary Ann Doane, *Op. cit.*, p. 217.

14) Rebecca Stott, *Op. cit.*, p. 35.

15) Mary Ann Doane, *Op. cit.*, p. 49.

16) 이명옥, *팜프 파탈*, (서울: 다빈치, 2003), p. 19.

17) *Ibid.*, p. 14.

을 원히 드러내고 적장의 목을 들고 있는 클림트(Gustav Klimt)의 '유디트'(1901)를 통해 선정적, 화려함 속에 가려진 여성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의 극히 상반된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성욕과 살해욕, 고통과 쾌락, 사랑과 죽음에 대한 상반된 감정에 대해 조르쥬 바타유(George Bataille)는 두 감정이 뿔 수 없는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프로이트(Sigmund Freud) 역시 에로스(eros)와 타나토스(thanatos)를 본능 충동으로 보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동시대의 유미주의 작가 오브리 비어즐리(Aubrey Beardsley)는 화려한 색채감 대신 아르누보적인 장식 선과 악의에 찬 살로메(그림 1)를 퇴폐적인 흑백의 선묘화로 표현하였다.

20세기 초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표현주의 예술 사조에서는 녹색 자본주의 여성, 도시 여성 노동자들이 창부로 묘사되었으며¹⁸⁾, 이는 곧 사회악으로써 남성들이 경계해야 할 위협적인 팜프 파탈의 도상이 되었다. 키르히너(Ernst Ludwig Kirchner)의 '거리'(1913)는 창녀 이미지의 팜프 파탈을 주관적인 색채와 날카로운 선, 과격한 붓터치로 부도덕하고 전박하게 묘사하였다.



〈그림 1〉 오브리 비어즐리의 '살로메'. 1894 (일러스트레이션), p. 87.

개인의 자유 존중과 개성을 강조하는 야수파는 주로 원색의 굵은 붓 터치를 사용하여 대담하고 거친 창부 이미지의 팜프 파탈을 창조하였다. 도발적인 이미지의 창부를 묘사한 블라맹크(Maurice de Vlaminck)의 '라 모르의 무희'(1906), 오염하면서도 찬박한 이미지를 묘사한 드랭(Andre Derain)의 '속옷 차림의 여자'(1906), 오리엔탈적 요소의 성적 판타지를 표현한 마티스(Henri Matisse)의 오달리스크 작품들이 그러하다.

초현실주의는 꿈, 광기, 무의식 등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비합리적 세계를 표현하였으며, 상반신은 여성, 하반신은 물고기로 묘사한 마그리트(Rene Magritte)의 '숨겨진 우주'(1943), 도시 산업 사회 속에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추악하고 기괴한 나체로 묘사한 하우스너(Rudolf Hausner)의 '아니마'(1947) 등에서 팜프 파탈을 찾아 볼 수 있다.

큐비즘에서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유명한 흥등가의 모습을 묘사한 피카소(Pablo Ruiz Picasso)의 '아비뇰의 아가씨들'(1907)에서 부정적, 악의 축으로 인식된 아프리카 조각상 모습의 여성 얼굴에서 팜프 파탈의 이미지를 찾아 볼 수 있다.

팝아트는 소비지향적인 현대 도시, 대중의 삶 등을 주로 색스어필에 초점을 맞춰 세속적 이미지의 팜프 파탈을 창조하였다. 리처드 린드너(Richard Lindner)의 '시키는 대로 해'(1969)는 여성성의 상징이자 어둠, 공포, 악의 이미지로 대변되는 뱀이 여성과 함께 등장하며, 팝아트의 대표적인 소재인 마를린 먼로는 현대적 팜프 파탈의 도상이 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사이버 공간의 새롭고 다양한 패러다임들을 포함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아트는 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의미하며 팜프 파탈의 새로운 시각적 도상을 확립하였다. 페미니즘과 연관된 팜프 파탈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남성과 여성 사이의 권력 차에서 기인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사이버 페미니즘(cyber feminism)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등장시켰다. 보철물의 몸을 지닌 인공적인 존재자 즉, 포스트 휴먼 신체와 디지털 기술에 초점을 둔 전자 신체¹⁹⁾ 등이 그러하며, 이것은 테크놀로지의 발

18) 박홍규, *시대와 미술*, (경북: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p. 116.

19) 김현수, 양숙희, "디지털 시대 패션에 나타난 사이버페미니즘 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7권 11호 (2003), p. 52.

달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분화적 팜프 파탈이자, 사 이버 공간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새로운 탈출구가 되었다.

2. 영화

팜프 파탈의 근원은 문학과 회화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헐리웃 영화와도 특별히 관련되어 있다. 영화 속 악녀 이미지는 1930년대, 1940년대에 걸쳐 주로 등장하였는데, 불황과 제2차 세계대전, 사회, 정치적 변화와 연관이 있다. 무성 영화 시대에는 테다 바라(Theeda Bara), 루이지 부룩스(Louise Brooks)와 같은 여배우들에 의해 뱀프로 주로 표현되었으며, 필름 느와르 장르에 주로 등장하였다²⁰⁾. 필름 느와르에서는 요부에게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고, 활동적이고 지적이며 강력하게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장악하고 있는 특권을 부여하였다. 시각적으로 여성의 성적 위험성은 검은 긴 머리, 부도둑의 단서로써 흡연 등을 통해 표현되었다²¹⁾.

1940년대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악한 여성은 남성들의 고유한 무대였던 범죄와 욕망의 세계에서 남성들이 하던 역할을 맡고 있다. 여성들은 전통적인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 제도를 위협하는 존재이며, 이러한 사악한(독립적인) 여성의 제거를 통해 위협을 제거하고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²²⁾.

1960년대와 1970년대 후반 동안 팜프 파탈은 뱀파이어 테마의 영화에서 매혹적이고 섬뜩한 괴물 이미지로 종종 표현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는 ‘마지막 유혹(The last seduction)’이나 ‘바디히트(Body Heat)’와 같은 영화에서 40년대 전통적인 느와르적 결말과 달리 모든 남성을 압도하며 냉담한 여장부 이미지로 더 지적이고 교활하며, 매혹적으로 묘사되었다²³⁾.

1990년대 영화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1940년대 팜프 파탈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여러 요소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어떤 누구, 혹은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극단성을 띠는 것이다. 둘째, 전통적, 로맨틱 개념의 사랑에 덜 흥미로운 것, 셋째, 교활함보다는 오히려 진정으로 무서운 것, 넷째, 범죄와 함께 자주 사라지고, 미록 죽더라도 우세함에 있다는 것이다²⁴⁾. 대표적으로 1991년에 제작된 로드 무비 ‘텔마와 루이스’(Thelma and Louise)는 섹시하고 강하며 두려움 없는 여성 캐릭터로서 여권 신장을 잘 보여주는 팜프 파탈의 은유적 영화로 손꼽을 수 있다.

1994년 영화 ‘폭로’(Disclosure)에서는 권력의 주체로써 여성의 이미지를 팜프 파탈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성용 비즈니스 슈트에 하이힐, 애로틱한 다리, 액세서리 등으로 중성화 된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영화 속에 보여지는 여성의 다리는 페미니티의 상징이자, 권력과 섹슈얼리티를 의미하며, 블랙 스틸레토(stiletto)는 모던 팜프 파탈, 페티시즘과 사도 마조히즘²⁵⁾을 함축하고 있다.

SF 장르에서도 팜프 파탈 이미지는 주요한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데, 1995년 ‘스피시즈’(Species)(그림 2)에서는 여성이 외계 생명체의 결합에 의한 성적 포식자로 등장하며, 2004년 ‘반 헬싱’(Van Helsing)



<그림 2> 영화 ‘스피시즈’.
1995 (www.naver.com).

20) Janine Paver, *Femmes Fatales*, (Kentucky: Wasteland Press, 2005), pp. 3-6.

21) 김영경, *여성과 예술*, (서울: 학문사, 2001), pp. 100-101.

22) 강관수, “느와르 영화에서의 팜프 파탈의 위험: 이중의 배상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학회지* 4권 2호 (2003), p. 55.

23) Stella Bruzzi, *Undressing Cinema: Clothing and Identity in the Mov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8), p. 127.

24) Janine Paver, *Op. cit.*, pp. 43-44.

25) Stella Bruzzi, *Op. cit.*, p. 137.

에서는 인간과 유기적 생물체의 결합인 흡혈귀로 표현되어 공포와 죽음을 의미하였다. 2004년 '캣우먼'(Catwoman)에서는 검정색 가죽 의상, 고양이 가면, 채찍, 다이아몬드 발톱 등으로 치장한 할 베리(Halle Maria Berry)의 모습을 통해 여성 관객들에게 색다른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영웅으로 그려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영화 속 팜프 파탈 이미지에 대해 임현주²⁶⁾는 20세기 중반까지는 영악하고 교활하며, 때로는 연약하고 신비로우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존재로 보았으며,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공격성, 자신감, 당당함, 카리스마 등의 성격이 강조되며 양성적이거나 남성적인 이미지를 부여받았다고 보고 그 차이를 지적하였다.

3. 패션

팜프 파탈이 등장하기 시작한 19세기는 대카당스한 시기로 알코올과 약물, 저 출산, 매독이 확산되었으며, 고급 매춘부와 레즈비언이라고 여겨지는 여성들이 팜프 파탈을 대변하였다. 그들은 '아마존'(amazon)으로 불리며, 주로 에로틱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위반이자 남성적인 것으로 인식된 승마를 위한 남성 취향의 의복을 추구하였다²⁷⁾. 여성의 남성복 착용은 20세기 들어 밀리터리룩, 유니섹스 스타일, 앤드로지너스 스타일로 이어지며 성의 혁명을 가져왔다. 특히 성적 구분의 모호함이 가지는 팜프 파탈적 의미는 성적 자유로움과 남성과의 동등한 권력을 상징하고, 여성들에게 자유로움과 지배욕을 만족시켜 준다는 것이다²⁸⁾.

권력적 남성 취향의 의복과 함께 에로틱한 스타일 역시 팜프 파탈의 주요한 특징을 이룬다. 일찍이 위대한 요부로 묘사된 고급 매춘부들은 화려한 화장과 의상의 글래머러스 룩으로 팜프 파탈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글래머라는 의미는 요부 이미지를 표현할 때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웨스티 사전에서는 상상을 자극하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예기치 않으며, 컬러풀하거나 또는 이국적인 취향의 신비스러운 흥분과 환영적인 유혹으로 묘사하고 있다²⁹⁾.

팜프 파탈의 에로틱한 이미지는 19세기 육체적 지배와 성적인 컨트롤을 암시한 타이탄 레이스로 된 코르셋 실루엣으로도 보여졌으며, 1947년에는 자극적인 허리의 누룩 컬렉션으로 이어졌다. 1940년대는 특히 필름 느와르에서 팜프 파탈의 재현을 통해 이러한 패션이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1950년대 초에는 John Willie's Bizarre Pub에 의해 제한된 유행으로 점차 대중화되었다³⁰⁾.

팜프 파탈의 주요한 패션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는 가죽 패션이 있으며, 1960년대까지는 활동적, 성적으로 해방된 여성들에게 구현되어 왔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인조 캣수트가 사도 마조히즘적 특성을 보여주며 팜프 파탈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1980년대는 HIV, AIDS와 연부되어 병, 죽음과 섹슈얼리티, 두려움이 팜프 파탈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아티스트들과 문화 이론가들에게 떠오르는 주제는 몸이었으며, 특별히 아트와 패션 이미지에서는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신체 개념, 프로이드의 언캐니(Uncanny), 바타이유(Bataille)의 앙포르메(Informe)등으로 1990년대 미국과 유럽의 주요 전시회의 주제로 등장하였다³¹⁾.

1990년대는 공포를 수반한 섹슈얼한 여성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으며, 남성과 여성 패션 잡지에서는 지속적으로 노골적인 누드, 반 누드의 모델들을 등장시켰다. 이것은 에로티시즘의 이면을 보여주며, 싸구려 글래머, 위협적인 폭력의 색조를 띠고 있었다³²⁾. '98~'99 F/W 갈리아노(John Galliano)

26) 임현주, "현대패션에 나타난 팜프파탈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72.

27) Valerie Steele, *Op. cit.*, p. 325.

28) 정민선, "성 정체성에 따른 Femme Fatale의 인체미와 복식스타일의 연관성"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 60-62.

29) Ruth P. Rubinstein, *Dress Codes: Meanings and Messages in American Culture*, (Boulder: Westview Press, 1995), pp. 115-116.

30) Andrew Bolton, *Fashion Untamed*,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4), p. 145.

31) Caroline Evans, *Fashion at the Edg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3), p. 148.

32) Rebecca Arnold, *Fashion, Desire and Anxiety*, (London · New York: I.B. & Co Ltd, 2001), pp. 76-77.



〈그림 3〉 '98~'99 F/W John
Galiano. (*Fashion at the
edge*), p. 126.

는 이러한 싸구려적이고 음탕한 창부의 이미지로 팜프 파탈을 표현하였으며(그림 3), '97~'98 F/W 맥퀸(Alexander McQueen)은 위협적인 힘을 지닌 동양적 이미지의 팜프 파탈을 표현하였다.

한편, 뮈글러(Thierry Mugler)는 인간과 동물이 혼합된 기괴한 판타지적 팜프 파탈을 창조하였는데, 특히 페티시스트한 가죽으로 성적인 위협성을 함축하여 표현하였다³³⁾. 이처럼 기괴한 인체미와 패션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는 팜프 파탈 이미지에 대해 정민선³⁴⁾은 일찍이 1930년대 반이성적, 신비적, 몽환적인 초현실주의, 1960년대 야수주의적 파괴미의 핑크 스타일에서 보여진 바 있으며, 1990년대에는 핑크 스타일에 미래주의적 조형성을 결합시킨 사이버 핑크, 퓨처리즘 테크놀로지의 영향으로 첨단 소재, 미래에 불명확한 세계에 대한 상상력이 투사되어 나타났다고 보았다.

90년대는 또한 미치거나 기능 장애를 가진 여성, 명백하지 않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레즈비언이나 뱀파이어³⁵⁾ 등 비 생식적 형태의 팜프 파탈 혹은 성과 죽음의 극단적인 고딕의 요소를 포함하여 과거의 어

두운 날들의 노스탤지어를 열망하며 초 여성적인 글래머 이미지의 팜프 파탈로 표현되었다³⁶⁾.

21세기 이후는 테크놀로지의 발달, 여성 파워에 힘입어 사이버 페미니즘이 확산되었으며, 사이버그룩, 뱀파이어룩, 인체 변형룩 등의 탈인체화로 나타나고 있다. 가상적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타난 탈인체미는 가상적, 파편적, 절단적 이미지의 포스트 젠더를 구현하고, 다변성, 개인적 주체성을 표현하며, 기계/인간, 유기체/인간,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융합을 통해 인체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주체성, 가상성, 환상성 등의 미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³⁷⁾. 이러한 사이버 페미니즘은 21세기 시대 변화에 따른 팜프 파탈의 또다른 전형이기도 하다.

IV.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팜프 파탈(Femme Fatale) 이미지의 표현 특성

1. 동물 및 기계의 결합에 의한 탈인체화

일찍이 남성의 판타지와 결부되어 나타난 팜프 파탈은 남성들에게 공포감과 전율을 느끼게 하는 위협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동물의 일부분을 여성의 인체와 접목한 신화적 이미지로 표현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화 속 팜프 파탈은 악마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었으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의복이나 신체 일부분에 접목되어 기괴하고 혐오스러움을 이끌어낸다³⁸⁾.

팜프 파탈의 탈인체화 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1980년대 이후 작가들이 패션 스타일의 단순한 재현을 넘어 내적 심상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미하면서 여성의 자연적인 인체미를 파괴하고 신화 속의 동물 혹은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동물과 결합된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형상들은 패션 메시지와 접목됨으로써 원형적인 신화 이미지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33) Linda Watson, *Vogue Fashion*, (London: Carlton Books, 2002), p. 196.

34) 정민선, *Op. cit.*, pp. 68-70.

35) Caroline Evans, *Op. cit.*, p. 127.

36) 최정화, "현대 패션에 나타난 글래머 이미지," *복식문화연구* 13권 5호 (2005), p. 101.

37) 김주영, *Op. cit.*, pp. 83-84.

38) 한지민, 유영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악마주의(Diabolism) 표현," *한국의류학회지* 27권11호 (2003), p. 1216.

<표 1> 대중문화 속에서의 팜프 파달(Femme Fatale) 이미지

	표현 특징	내적 의미	시각적 표현특성
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 동물의 결합 · 남성 불안과 공포의 대상인 마네키, 뱀파이어 이미지 · 죽음과 섹슈얼리티를 함축 · 여성을 압도하는 남성적 이미지 · 도발적 창부, 오리엔탈적 요소의 성적 판타지 · 추악하고 기괴한 나체 · 섹스어필의 세속적 이미지 · 디지털 기술과 접목된 신체 		
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슈트와 블랙 스틸레토 스타일의 중성적 이미지 · 페티시즘, 사도 마조히즘적 묘사 · 범죄와 욕망 등 남성적 역할의 사악한 여성 · 매혹적이고 섬뜩한 괴물 이미지 · 부도덕적 이미지인 흡연 여성 · 인간과 유기적 생물체의 결합인 휴혈귀 · 지적이고 교활하며 배후적인 남성을 압도하는 냉담한 여장부 · 연약, 교활함, 신비로우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존재 · 공포와 죽음의 미지 외계 생명체 · 공격적, 자신감, 당당함, 카리스마적 성격의 양성적 혹은 남성적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락적, 퇴폐적, 폭력적 관능성 · 파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성 · 초자연적 형상의 신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및 기계의 결합에 의한 탈인체화 · 죽음과 섹슈얼리티의 이중성 · 성적 퇴폐성 및 비정상성
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 매춘부 · 남성취향의 의복 스타일 · 성적 모호함, 권력적 상징의 밀리터리룩, 유니섹스, 앤드로지너스 스타일 · 비 생식적 레즈비언, 초자연적 존재로서의 뱀파이어 · 페티쉬한 성적 위험성 함축 · 성과 죽음의 고딕적 클래머 이미지 · 섹슈얼하고 동양적인 요부 · 동물과의 결합 · 반이성적, 신비적, 몽환적인 초현실주의 · 펑크 스타일의 파괴미 · 미래의 불명확한 세계에 대한 상상력이 투여된 사이버 펑크 · 기계/인간, 유기체/인간,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섹슈얼한 동양적 이국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위폴한 남성 취향

<그림 4>는 1988년 톨레도(Luben Toledo)의 작품으로 반인반수 사이렌의 신화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글래머러스한 메이크업, 구불거리는 헤어, 물고기 비늘모양의 채킷, 크고 거친 비늘과 가늘고 긴 꼬리, 새 채가 배제된 드로잉 등이 매혹적이고 신비로우며 아름다운 모습이라기보다 기괴함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여체와 동물의 결합에 의한 신화적인 모습을 벗고,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그림 5>는 1988년 시스토(Maddalena Sisto)의 작품으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악어의 두상을 나체의 여성 인체와 결합함으로써 유너를 첨가하기도 한다.



<그림 4> Luben Toledo. *The Style Dictionary* (1988), p. 133.



<그림 5> Maddalena Sisto. *Fashion Illustration in Europe* (1988), p. 55.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리얼리티를 부여하는 사진과 페인팅의 조합은 보다 심숙한 팜프 파탈의 형상을 창조한다. <그림 6>은 1995년 오보스키(Kellie O'bosky)의 작품으로 리얼리티를 토대로 부분적인 동물 이미지의 접목을 통해 보다 심숙한 이미지로 표현된 것이다. 모델의 실물 사진을 토대로 미스터리한 동물의 앞니, 공격적이며 혐오감을 주는 동물의 손톱, 날카롭고 개성적 노려보는 눈과 과장된 눈썹은 모호하고 심숙한 팜프 파탈 이미지를 보여준다.

20세기 말 이후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도 보다 리얼리티를 가미한 탈인체화 된 팜프 파탈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은 2004년 매그나스(Christos Maggnas)의 작품으로 3D 그래픽과 이미지 변형을 통해 기계 이미지의 헤어, 물고기 비늘 모양의 목으로 결합된 판타지적인 사이보그 형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신체와 기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사이보그는 과학적 허구, 포스트모던 메타포의 창조물이자 기계와 유기체의 화합물로 이론화되고 조립화 된³⁹⁾ 팜프 파탈의 또다른 실체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한 미약한 인간의 존재를 보다 강력하게 만들며, 인간 내부의 욕망에 대한 새로운 탈출구를 제시하기도 한다.

2. 죽음과 섹슈얼리티의 이중성

정신분석학에서 프로이드는 신화적 모티브로써



<그림 6> Kellie O'bosky, *The Style Engine* (1995), p. 69.



<그림 7> Christos Maggnas, *Pixel Surgeons* (2004), p. 141.

팜프와 결합된 메두사의 얼굴이 여성의 음부와 같으며, 이러한 여성의 음부는 배후와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공포와 에로티시즘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메두사 신화의 주제는 쾌락과 공포, 환희와 두려움, 성욕과 죽음에 관한⁴⁰⁾ 이중성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성과 죽음에 대한 주제는 사진, 예술, 디지털 미디어 등을 통해 다양한 형식으로 재현되어 왔으며, 패션에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 에로티시즘과 폭력이 위험한 균형을 이룬 가운데, 과시적인 것 과 부패, 질병, 육체적 남용을 암시하는 것이 혼합되어 나타났⁴¹⁾.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도 1990년대 말 이후 여성의 성적 매력과 함께 죽음을 의미하는 남성의 잘린 목, 해골, 피, 죽음을 암시하는 은유적 대상체 등이 함께 등장함으로써 팜프 파탈의 이중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8>은 1998년 셀레(Cellia Calle)의 작품으로 팜프 파탈의 전형적인 형상 가운데 하나인 스파이더 우먼을 상기시킨다. 성욕적 이미지의 에로틱한 바디와 포즈, 페티시적인 가죽 의상과 스틱(stick) 그리고 이와 더불어 남성을 구속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은유적 대상으로써 거미줄을 함께 표현하였다.

죽음을 상징하는 붉은 색과 성적 부위의 점복은 여성의 치명적인 섹슈얼리티를 더욱더 직접적으로 암시한다. <그림 9>는 2002년 에스드래그넷(Sarah-



<그림 8> Cellia Calle (1998). www.celiacalle.com



<그림 9> Sarah-Laure Estragnat, *Young Blood* (2002), p. 68.

39) Patrizia Calefato, *The Clothed Body*, (New York: Berg, 2005). p. 61.

40) 이명옥, *Op. cit.*, pp. 14-40.

41) Rebecca Arnold, *Op. cit.*, pp. 81-82.

Laure Estragnat)의 작품으로 섹슈얼리티를 함축한 입술과 손톱, 가슴을 중심으로 붉은 색의 거칠고 강렬한 터치가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003년 카임(Buzzelli Kime)의 작품(그림 10)은 매섭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여성, 피를 연상시키는 붉은 색의 컬러, 강렬한 터치감과 비현실적인 색채와 함께 죽음을 암시하는 두개골을 함께 병치시킴으로써 직접적인 죽음과 섹슈얼리티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팝아트 파탈의 전형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구성한 <그림 11>은 2004년 타나부(Toshifumi Tanabu)의 작품으로 가장 직접적인 팝아트 파탈을 환기시킨다. 두 손에 날카로운 장검을 들고 남성의 잘린 머리를 들고 있는 파괴적 속성의 살로메를 해체적으로 표현한 이 작품은 특히 눈동자를 생략하여 모호함과 냉혹함을 강조하고, 버리카카은 풀어 해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단정하게 꼰라주화 함으로써 성적 매력보다 파괴적이고 섬뜩함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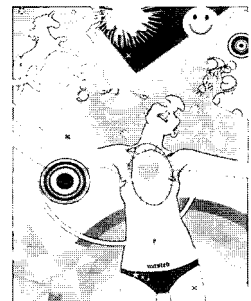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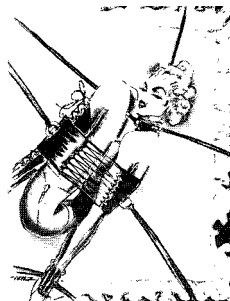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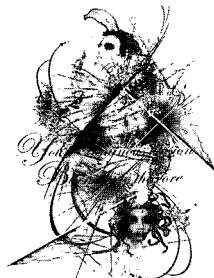
이처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죽음과 섹슈얼리티의 이중적 특성은 남성을 유혹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팝아트 파탈 스토리에 초점을 두고 강렬한 붓터치, 색채, 표현기법 및 미디어의 다양화를 통해 비유적이거나 암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3. 성적 퇴폐성 및 비정상성

성(性)을 소재로 한 예술의 형태들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져 왔으며, 시대적 분위기와 함께 아픈담고 성스럽게 포장되거나 혹은 터부(taboo)로 여겨졌던 퇴폐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팝아트 파탈은 저급함과 뇌쇄적 이미지로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였으며, 가학, 피가학, 변태 성욕과 같은 반사회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져왔다. 대표적인 1980년대 팝문화 아이콘으로써 마돈나(Madonna), 애니 레녹스(Annie Lennox)는 성적 도덕성을 파괴한 역할 모델로서 인식되었으며⁴²⁾, 이어 1990년대 이후 인터넷과 디지털 매체의 발달은 에로티시즘의 비정상적인 면 즉, 퇴폐적이고 싸구려적인 이미지로써 포르노 문화, 포르노 스타들이 예술, 사진, 영화 속에서 한 영역을 차지하며 대중들에게 급속히 퍼져나갔다⁴³⁾.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팝아트 파탈의 성적 퇴폐성과 비정상성은 남성들의 성적 욕망에 어필하는 피가학적인 이미지에서 보여진다. <그림 12>는 1992년 페레즈(Thierry Perez)의 작품으로 부도덕한 이미지의 섹스 심벌로서 남성들을 유혹하는 마돈나를 팝아트 파탈로 표현한 것이다. 관능적인 핑크색 쿠션을 배경으로 타이트한 검정색의 코르셋, 롱 부츠, 가터벨트를 한 마돈나의 뒤편진 모습은 페티시적, 마조히즘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의 비정상성을 강조한 <그림 13>은 2005년



<그림 10> Buzzelli Kime. *Fashion Illustration Next* (2003), p. 47.
 <그림 11> Toshifumi Tanabu. *Wonderland* (2004), p. 125.

<그림 12> Thierry Perez. *Fashion Illustration Today* (1992), p. 123.
 <그림 13> Jasper Goodall. *Illusive* (2005), p.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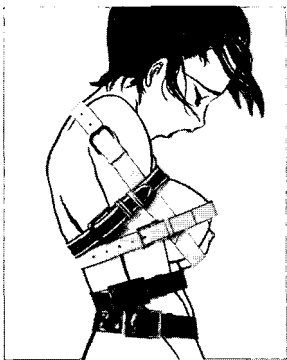
42) *Ibid.*, p. 76.

43) Robert Klantén, Hendrik Hellige and Sven Ehmann, *All allure*, (Berlin: Die Gestalten Verlag GMBH +Co. KG, 2006), p. 2.

구달(Jasper Goodall)의 작품으로 남성성의 상징하는 유니콘, 기하학적인 도형, 가시 돋친 꽃, 스마일 형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가운데, 몽환적인 색채, 풀어 헤친 머리카락, 낮게 내리 뜬 눈꺼풀, 관능적인 입술과 창백한 얼굴의 반 전라 여성을 묘사한 것이다. 몸에 새겨진 '마약에 취한(wasted)'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정상적이고 퇴폐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어둡기보다 오히려 작가의 심상이 반영된 비사실적이고 몽환적 색채로 그리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선정적인 패션 인체를 더욱더 강조한 <그림 14>는 2006년 보르소디(Bela Borsodi)의 상업 광고로 사용된 일러스트레이션이다. 성적 어필을 위한 누드, 감겨진 눈, 벌린 입술, 선정적 가슴이 명백하고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이 특징적이며, 소위 병풍이라 일컫는 브랜드의 벨트들과 함께 마조히즘적 팜프 파탈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급스러움과 상반된 팜프 파탈의 저급함, 음란하고 병적 섹스어필의 이미지는 현대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제품을 보다 강렬하게 각인시킨다.

남성적 시각과 관련되어 있는 자극적이고 음란한 이미지의 팜프 파탈은 시대를 반영하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도 소위 전통적인 미의 상징으로 여겨 온 여체를 야만적이고 퇴폐적이며 음란하기까지 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시



<그림 14> Bela Borsodi (2006).
www.art-dept.com

각과 더불어 여체에 대한 또다른 시각과 또다른 미적 가치를 부여하고, 억압적이고 폐쇄적 시각을 유동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끌어 내며, 우리 사회 속에서 소외된 감정들에 대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유도해 내기도 한다.

4. 파워풀한 남성 취향

성적으로 수동적이고 전형적인 여성성을 거부하는 팜프 파탈은 남성 취향을 통해 남성과 동일한 권력을 내면화한다. 성취와 성공, 권력과 결부되어 있는 남성 이미지는 19세기 초 페미니스트들의 남성화 경향 속에서 남성 복장, 남성적 관습 등으로 이어졌다. 남성 취향은 전통적인 여성성을 벗어나는 부정적인 것으로써 팜프 파탈의 이미지를 형성하였으나, 남성들에게는 색다른 호기심과 성적 매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일례로 1930년대 헐리웃 글래머 아이콘인 마를린 디트리히는 남성복 스타일을 착용한 모습을 통해 오히려 여성적 곡선미를 더욱더 강조하고, 남성들에게 성적 판타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남성적인 파워풀함을 가진 여성 이미지에 대해 박창희·성광숙⁴⁴⁾은 포스트 모던시대로 갈수록 성적 대상으로써 보다 상대방을 위협하는 듯 한 왜곡된 중성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으며, 스타일로는 80년대의 남성적인 강한 파워가 느껴지며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강렬한 포즈에 넓은 어깨와 근육질의 분매, 남성적인 얼굴에 핑크적이거나 그로테스크한 메이크업으로 표현되고 과장된 빅룩을 착용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팜프 파탈 이미지 역시 유사한 외형적 스타일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림 15>는 1983년 마제라(Hélène Majera)의 작품으로 남성적인 물리적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모던한 블랙, 탄탄한 근육미가 느껴지는 다리를 통해 파워풀하고 모던한 팜프 파탈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남성적 역동미가 느껴지는 인체와 함께 남성의 전유물로만 느껴졌던 흡연은 부도덕한 팜프 파탈의 단서로써 전통적인 여성성을 넘어서 남성의 힘과 권력을 내면화하는 또다른 요소가 된다. <그림 16>은

44) 박창희, 성광숙,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이미지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8권 4호 (2004), p. 39.



〈그림 15〉 Hélène Majera. *Fashion Illustration Today* (1983), p. 86.

1987년 쿠퍼(Michael Cooper)의 작품으로 역시 빅 룩 스타일의 코트, 패드를 첨가한 남성적인 넓은 어깨를 표현한 것이다. 더불어 미스터리함을 암시하는 머릿수건, 선글라스, 남성 취향의 담배 등은 범죄와 관련된 느와르 영화 속의 남성 이미지와 닮아 있다. 남성적인 복장을 벗어나 남성적인 인체미를 보여주는 〈그림 17〉은 1998년 바르덴레벤(Kai Bardeleben)의 작품으로 남성미가 느껴지는 팔과 흡인의 단서로써 담배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가슴으로 표현되어 있다. 힘이 느껴지는 인체는 남성과의 동일한 역할 수행을 암시하며, 더불어 인위적이고 과장된 가슴은 아름답기보다 성적인 공격성과 두려움을 암시한다. 이처럼 남성적 힘과 여성의 성적 파워를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남성 이상의 힘을 지닌 두려움의 대상으로써 팜프 파탈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파워풀한 남성적 취향의 또다른 이미지를 보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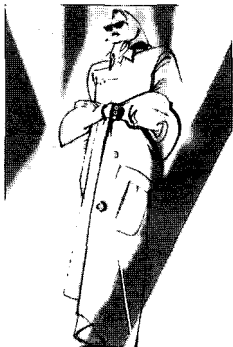
〈그림 18〉 Jolly Roger. *Headheart & Hips* (2003), p. 7.

고 있는 2003년 로지(Jolly Roger)의 작품(그림 18)은 남성적 성향의 공격성, 난폭함, 공포감, 약탈을 떠올리게 하는 해적의 이미지를 절제된 색채로 파워풀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남성적 힘이 느껴지는 파워풀한 인체적 특징을 찾아 볼 수는 없지만, 해적을 상징하는 기호, 위험성을 내포한 무기를 새롭게 활용함으로써 범죄와 연관된 팜프 파탈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파워풀한 남성 취향의 팜프 파탈 이미지들은 남성적 힘과 권력을 내면화하고,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하며 사회적 약자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한다.

V. 결 론

오늘날 여러 미디어 매체에서 보여지는 팜프 파탈은 성적 매력을 통해 남성들을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여성에서부터, 지적이고 남성과 같은 사회적 능력을 가진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치부되었던 예전과는 달리 새로운 시대의 패러나임과 사회발전을 이끌어어나가는 하나의 긍정적인 문화적 기호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팜프 파탈 이미지가 대중문화 속에서 표현된 시각적 표현 특성과, 이를 토대로 1980년대 이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팜프 파탈 이미지의 표현 특성



〈그림 16〉 Michael Cooper. *Fashion Illustration Today* (1987), p. 44.



〈그림 17〉 Kai Bardeleben. *New Fashion Illustration* (1998), p. 65.

〈표 2〉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팜프 파탈 이미지의 표현 특성

시각적 표현 특성	표현 특징	표현 효과
동물 및 기계의 결합에 의한 탈인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화 속 동물, 공격적인 동물의 일부를 변형적으로 집목한 기괴하고 악마적인 이미지 · 위험적 동물의 일부분과 여체 사진을 집목한 리얼하고 섬뜩한 형상 · 디지털 매체를 통한 리얼하고 미스터리한 사이보그 형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성적 판타지 · 미스터리한 공포, 전율 · 인간 욕망의 새로운 탈출구 제시
죽음과 섹슈얼리티의 이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함의의 포즈, 인체, 죽음을 암시하는 은유적 대상을 동시에 병치 · 여체와 죽음을 암시하는 해골, 피 등의 거칠고 강렬한 묘사 · 파괴적 속성의 죽음을 해체적으로 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적 쾌락 · 위험적 공포와 섬뜩함
성적 퇴폐성 및 비정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티시즘적 스타일 · 쾌락적, 싸구려적 성(性)의 명백하고 노골적인 묘사 · 반사회적·병적 섹스어필의 마조히즘적 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성적 판타지 · 억압적·폐쇄적 시각의 유통화·개방화 · 소외된 감정의 카타르시스
과워풀한 남성 취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적 얼굴과 포즈, 인체의 모방 · 남성복 스타일 착용을 통한 남성적 외형 모방 · 범죄와 관련된 남성적 역할 수행 · 남성 범죄와 관련된 위험적 도구의 병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성적 판타지 · 남성적 힘과 권력의 내면화 · 소외된 감정의 카타르시스

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회화, 영화, 패션에 나타난 팜프 파탈 이미지의 시각적 표현 특성은 동물 및 기계의 결합에 의한 탈인체화, 죽음과 섹슈얼리티의 이중성, 성적 퇴폐성 및 비정상성, 과워풀한 남성 취향으로 분석되었으며, 각각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팜프 파탈 이미지의 표현 특징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 및 기계의 결합에 의한 탈인체화는 먼저 패션 이미지와 관련하여 신화 속 이미지 혹은 공격적인 동물의 일부를 변형적으로 집목함으로써 기괴하거나 악마적으로 표현되었다. 이에 더하여 리얼리티를 부여하기 위해 위험적 동물의 일부분을 여체의 사진과 접목하여 섬뜩한 그로테스크적 형상을 창조하였다. 리얼리티함은 또한 디지털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기계와 여체를 집목한 사이보그 형상으로 나타났으며, 모던한 팜프 파탈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팜프 파탈의 이러한 기괴한 이미지들은 남성의 성적 판타지에서 탄생된 것으로 미스터리한 공포, 전율을 자아내며, 나아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한 새로운 탈출구를 제시하기도 한다.

둘째, 죽음과 섹슈얼리티의 이중성은 1990년대 말

이후 성적 함의의 포즈, 인체, 죽음을 암시하는 은유적 대상 등을 동시에 병치하거나, 혹은 여체와 남성의 죽음을 암시하는 해골, 피 등의 강렬한 묘사, 파괴적 속성의 죽음을 해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팜프 파탈이 가지고 있는 위험적 쾌락, 위험적 공포와 파괴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성적 퇴폐성 및 비정상성은 페티시즘적 스타일, 쾌락, 싸구려적 성(性)의 명백하고 노골적인 묘사, 반사회적·병적 섹스어필의 마조히즘적 묘사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남성의 성적 판타지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억압되고 폐쇄적인 여성에 대한 시각을 유통화·개방화시키고, 소외된 감정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의미하기도 한다.

넷째, 과워풀한 남성 취향은 남성적 얼굴, 포즈, 그리고 인체의 모방, 남성복 스타일 착용을 통한 남성적 외형 모방, 범죄와 관련된 남성적 역할 수행, 남성 범죄와 관련된 위험적 도구의 병치 등으로 나타난다. 남성적 여성으로의 묘사는 아 역시 남성의 성적 판타지와 결부되어 나타난 것이며, 여성들은 이를 통해 남성의 권력을 내면화하고 사회적 약자로서 소외되어왔던 감정들에 대한 카타르시스로 작용한다.

이상과 같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팜프 파탈

이미지는 패션 이미지와 작가 특유의 관점 그리고 표현 매체의 발달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인체와 스타일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적 특성들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시대의 주요한 여성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팜프 파탈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역시 우리 시대의 주요한 문화적 코드를 다루는 시각 예술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관수 (2003). "느와르 영화에서의 팜프 파탈의 위험: 이중의 배상을 중심으로." *분학과 영상학회지* 4권 2호.
- 김영경 (2001). *여성과 예술*. 서울: 학문사.
- 김주영 (2002). "길 파워 의상에 표현된 3세대 페미니즘."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수·양숙희 (2003). "디지털 시대 패션에 나타난 사이버페미니즘 연구(제1보)." *한국외국어학회지* 27권 11호.
- 박창희·성광숙 (2004).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이미지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8권 4호.
- 박홍규 (1997). *시대와 미술*. 경북: 영남대학교 출판부.
- 서승원 (1992). *몽크*. 서울: 서문당.
- 이명옥 (2003). *팜프 파탈*. 서울: 다빈치.
- 임현주 (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팜프파탈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민선 (2004). "성정체성에 따른 Femme Fatale의 인체미와 복식스타일의 연관성."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화 (2005). "현대 패션에 나타난 글래머 이미지." *복식문화연구* 13권 5호.
- 패커, 윌리엄 (1995). *Fashion Drawing in Vogue*. 강은숙 역. 서울: 경춘사.
- 한지민, 유영선 (2003).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악마주의(Diabolism) 표현." *한국외국어학회지* 27권 11호.
- 호리에, 타마키 (2004). *남자들은 왜 악녀에게 끌리는가*. 정은지 역. 서울: 한언.
- Arnold, Rebecca (2001). *Fashion, Desire and Anxiety*. London · New York: I.B. & Co Ltd.
- Bolton, Andrew (2004). *Fashion Untamed*.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Bruzzi, Stella (1998). *Undressing Cinema*. London & New York: Routledge.
- Calefato, Patrizia (2005). *The clothed body*. New York: Berg.
- Doane, Mary Ann (1991). *Femmes Fatales*. New York & London: Routledge.
- Evans, Caroline (2003). *Fashion at the edg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arris, Anita (2004). *All about the Girl*. New York: Routledge.
- Kaplan, E. Ann (1980). *Women in Film Noir*. London: BFI Publishing.
- Klanten, Robert, Hellige Hendrik and Ehmman Sven (2006). *All Allure*. Berlin: Die Gestalten Verlag GMBH +Co. KG.
- Paver, Janine (2005). *Femmes Fatales*. Kentucky: Wasteland Press.
- Rubinstein, Ruth P. (1995). *Dress Codes*. Boulder: Westview Press.
- Steele, Valeric (2004). "Femme Fatale: Fashion and Visual Culture in Fin-de-siècle Paris." *The Journal of Dress, Body & Culture* Vol. 8 No. 3.
- Stott, Rebecca (1992). *The Fabrication of Late-Victorian Femme Fatale*.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Macmillan.
- Watson, Linda (2002). *Vogue Fashion*. London: Carlton Books.